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나는 최근에야 구보 박태원이 소설적 부터 숙부이자 한학자인 양의 박용남에게 한문을 배우고 그 후에는 당대의 중국 문학 대가인 양백화 선생에게 사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1930년대의 모더니스트 문학동인 '9인회' 회원이었던 시인 정지용이 한시의 대가였고, 소설가 이태준이 전문적인 안목을 가진 골동서화의 수집가이자 감식가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한문과 전통문화에 대한 소양은 당대 모더니스트들의 기본 교양이었던 모양이다.

마니아급 열성 독자나 연구자들을 만날 수 있다. 심지어는 '삼국지'의 유적지를 따라 중국 현지를 탐방하는 동호인들도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번에 나온 깊은 샘 판 '삼국지'는 박태원이 북한에서 남로당계로 몰려 숙청되었다가 복권된 후에 얻은 관본인데, 북한에서도 절판된 것을 일본과 중국 등지를 뒤져 힘들게 복간한 것이다. 내가 어렵게 읽었던 정음사판보다는 한글로 쉽게 풀어쓰고 여주를 붙여 읽기 쉽다.

박태원의 장남인 박일영 씨가 쓴 '나의 아버지 박태원과 삼국지'라는 머릿글도 읽을 만하다. 해학동 최현배 선생(정음사 최영해 사장의 아버님인 한글학자)덕으로 '삼국지' 원고를 나르던 일이라든가, 미국이민 후에, 병으로 쓰러진 북한의 아버지를 방문하거나 연락을 할 기회가 있었으나 철저한 반공교육 탓으로 포기한 얘기는 가슴이 찡하다.

그렇지만 내 기억 속에서는 세로담이로 되어 있는 10권짜리 정음사판 '삼국지'가 단연 최고의 결정판으로 남아 있다. 벽초 홍명희의 '일격정'도 비슷한 10권짜리 가로쓰기판보다는 신문 연재소설을 스크랩하여 복사한 흐릿한 판본이 편지 정전처럼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비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박철환 해남군수와 교육장 등이 포함된 장학사업 추진위원들의 외유에 대해 말들이 많다. 박 군수 등 장학사업 추진 위원 6명과 비(非)위원 3명 등 9명이 지난 20~28일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교육 선진지'를 다녀오면서 사실상 관광성 외유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핀란드에서만 교육기관 몇 군데를 보고,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과 관련이 없는 양로원 등 복지시설과 관광지를 둘러봤다고 한다. 가뜰이나 어려운 재정 형편에 외유 경비만 1인 당 640만 원씩 모두 6000만 원에 이르고, 5명의 외유비율을 장학사업에 투입된 장학기금에서 충당했다고 하니 과연 재정신인가. 더구나 이번 시찰에 추진위원도 아닌 군수 비서실장이 동행한 것도 문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일선 지자체의 비리와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적당히 엄격 성립은 아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뇌물수수과 공금 횡

령 등 부정을 저질러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광주시 관내 공무원이 79명,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 23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무원들의 비리보다 이들이 도덕적인 죄의식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크다. 해남군의 관광성 외유에서 보듯 도덕적 일탈행위가 자칫 또다른 후안무치(厚顔無恥)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지방공무원들의 징계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100명 당 1명 꼴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러 간 지방자치를 망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하는 이 유다. 주민들은 부패한 인사가 단체장에 등용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에서 철저히 가려내고 의회 역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다.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공직에 다시금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함은 물론이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유료화 안 된다

담양군이 지역 명물인 담양읍~금성면 1.5km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의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근은 이곳 주변 자연경관 보존과 생태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1000~2000원의 입장료 부과와 입장 시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리조례안을 제정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것이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은 지난 2002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 수상한 이후 지난해 117만 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지역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각종 드라마와 영화, CF 등에 소개되면서 지역민뿐만 아니라 많은 외지인이 찾고 있어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하고 있다.

담양군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유료화 추진은 시기상조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물론 군의 주장처럼 관광객이 몰리면서 경관 보존과 관리에 비용이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리 부담을 관광객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타산 행정'의 전형이다. 더욱이 이곳은 국도인데다 단순 보행로로 지자체 마음대로 유료화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실형 유료화가 가능하더라도 과연 2000원의 입장료를 내면서 찾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은 국립공원도 무료로 개방하는 추세이지 않은가. 그럼에도,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돈을 받겠다니 갈 정도로 지역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각종 드라마와 영화, CF 등에 소개되면서 지역민뿐만 아니라 많은 외지인이 찾고 있어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하고 있다.

담양군은 선분부 유료화가 외지인의 발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를 흐리고 지역경제에도 찬물을 끼얹는 등 '쇼타대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NGO 칼럼



장경수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 '광주 장애인재단'이 해답이다. 올해 초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홍보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경제는 8년만의 최고 성장률(6.1%) 달성, 1인당 국민소득 2만불대로 복귀, 세계 7대 수출국으로도 약, 2년 연속 400억불 이상 흑자 달성 등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격'을 높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 정부의 국

'광주장애인재단'이 해답이다

정운영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모노리서치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월별 국정운영평가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데, 지난 5월 16일에 실시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조사 결과 '잘못함'(대체로 잘못함) 27.4%, '매우 잘못함' 38.6% 응답은 66.0%로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잘함' 응답은 24.5%(대체로 잘함) 18.7%, '매우 잘함' 5.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장애인복지 예산삭감, 빛 좋은 개살구 격인 장애인연금제 시행, 허울뿐인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 등 최근 정부의 장애인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현 정부 국정운영평가 가는 그리 높지 않다.

우리 광주의 경우도 민선5기 시장 목표인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도 내일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시장 방침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복지예산 매년 100억 증액,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 구별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의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복지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지역 장애인 단체나 기관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장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편적인 예산지원만 이루어지고 있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고



백맹선

호국·보훈의 달 6월이 다시 찾아왔다. 6월 6일에는 현충일이 있으며 6월25일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61주년이 되는 날이다.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지 9주년이 된다. 이렇듯 6월에는 유난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다. 정부에서는 나라와 겨레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에게 보답하고 그 뜻을 널리 기리기 위하여 6월 한 달간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친안환 사건과 연평도 도발에서 교훈을 얻어 국민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국가와 보훈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백암 박은식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 시절 정신적 국가관 망하지 않는다면 형식적 국가는

보훈가족 예우와 나라사랑

망했을지라도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만큼 나라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선열의 말씀이라 생각한다. 요즘 우리는 옛날보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삶을 이어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보훈이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그분들을 예우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다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일에 소홀한다면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보훈의 이념에는 호국정신만 있는 것은 아니고 독립정신과 민주정신도 함께 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그 뜻을 널리 기리는 일은 한 나라와 민족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나가기 하는 기초이자 원동력이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해도 그것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리

문제로 인한 남북 간의 갈등, 고물가로 인하여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고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국론분열과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는 등 그동안 쌓아 놓은 경제적 실리가 위태롭다는 각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접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중대한 교훈이다. 위정자들은 자유와 평화, 번영과 복지가 꽃피는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만이 호국영령들의 애국정신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 보는 소중한 6월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풍요로운 삶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독립, 호국, 민주정신이 어우러진 더 큰 대한민국을 가꾸어 나가는데 소출함이 없도록 하자. 보훈가족 예우 속에서 나라사랑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부소장>

낮부끄러운 해외 성매매 관광 근절돼야

회사 업무로 중국으로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추태를 적잖게 본다. 그중 하나가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가는 관광객들 중 일부가 국제 매춘을 하는 것이다. 중국 친파오 현지에 가서 들어보면 낮에는 골프를 치고 밤에는 한국인만 받는 술집이 운영될 정도로 우리 국민의 매춘이 심하다. 심지어 미성년자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도 많다고 들었다. 현지 가이드 말로는 지상과 지하 5층 건

물에 방이 무려 50~60여개나 되고 여중업원만 300~400명이나 되는 술집이 친파오 도심에 수십 개나 된다고 한다. 술집이 이렇게 큰 이유는 한국의 단체 여행이 많아 이들을 한꺼번에 맞이 위해서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 방 예약을 안하면 토요일에는 방이 없어서 못 가는 수도 있다고 한다. 술집 밖에서는 한국 남자가 여자 중업원과 함께 차를 타고나가는 장면도 쉽게 목격된다. 소위 2차를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의 성매매 관광 행

위는 이전부터 몽골을 비롯한 필리핀 태국 같은 아시아 전지역에서 행해졌다. 자연히 국제적인 비난과 말성도 많았다. 그냥 개인들의 사적인 관광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캠페인을 통해서라도 남성들의

해외 성매매 관광행위의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 돈을 앞세운 성매매는 하루빨리 근절시켜야 할 우리의 부끄러운 병폐가 아닌가 싶다. ▲이영성·광주시 동구 대인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월사금(月謝金). 다달이 감사의 뜻으로 내던 돈, 즉 수업료를 이르는 말이다. 나이 지긋한 장년이나 노년층에게는 유태롭다는 각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접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중대한 교훈이다. 위정자들은 자유와 평화, 번영과 복지가 꽃피는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만이 호국영령들의 애국정신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 보는 소중한 6월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풍요로운 삶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독립, 호국, 민주정신이 어우러진 더 큰 대한민국을 가꾸어 나가는데 소출함이 없도록 하자. 보훈가족 예우 속에서 나라사랑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부소장>

게 됐다. 그러나 선진국 문턱을 넘보는 시점에 월사금보다 훨씬 무거운 공포가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 바로 대학 등록금 스트레스다. 서울지역 특정 사립대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 원을 육박하는 바람에 상당수 대학생은 책읽기 대신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쫓겨야 한다. 일부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처지다.

월사금



4·27 재보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은 민심을 다독이려 '반값 등록금'을 화두로 내세웠다. 민주당도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 민감한 이니셔티브를 넘겨줄 수 없다며 등록금 논쟁에 가세했다. 그러나 진정 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권의 사탕발림 '퍼포먼스'가 아니다. 당장 반값 등록금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지 또한 우선이다. 국민이 21세기에 태어난 '월사금비대'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여야 모두의 숙제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康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2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재무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경부 2200-612	사진부 2200-693	다지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7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